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약해진 한국교회의 회복과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공동체 전체모임이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는 모임으로, 운영위원회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 지난 주간에 어린이학교 도보여행과 멋쟁이학교 테마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멋쟁이학교 5학년은 이번 토요일에 귀국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조향민 · 최신혜 집사 가정 (정해분 권사님 생신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조향민 · 최신혜 집사 가정 (정해분 권사님 생신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44 호

2022년 10월 3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며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멋쟁이 5학년 학생들과 매우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유럽의 가을을 느끼며 떼제 공동체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유럽 여행의 주제 중 하나가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는 것이어서, 이번 종교개혁 주일에 글을 쓰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 비텐베르크에 들러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성 교회 정문에서 사진도 찍고, 루터 생가에도 방문해서 자신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과 함께 토론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식탁의 자리에도 가 보았습니다. 루터 생가 정원에는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녀의 동상은 마치 급한 용무가 있어서 어딘가를 향해서 급하게 걸어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 많은 손님들을 만날 때, 뒤에서 쉴 새 없이 바빴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텐베르크 광장에는 루터의 동상과 함께 서 있는 멜랑히톤의 동상이 있는데, 그는 학문적인 소양이 뛰어났기 때문에, 루터의 신학을 글과 책으로 잘 정리하여 그가 주장하는 바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조력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가 있었던 체코 프라하 광장에 서 있는 그의 동상 아래에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식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당신들은 오늘 거위 한 마리(후스라는 말에 체코 말로 거위라는 뜻이 있다)를 불에 굽지만, 그 타고 남은 재에서 100년 안에 백조가 한 마리 나올 것이다. 그 백조를 당신들은 결코 불태울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남긴 말대로 루터가 백 년 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칼뱅의 도시 제네바로 이동해 바스티옹 공원에 있는 종교개혁기념 기념비에서 파렐, 칼뱅, 베자, 녹스의 석상을 만났습니다. 종교개혁

기념비는 높이 10미터 길이가 10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기념비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연도들과 인물들이 각인 혹은 부조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를 안내해 주신 제네바 한인교회 박영진 목사님의 설명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네 개의 큰 석상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 반해, 사람들의 눈길이 잘 안가는 왼쪽 구석에 있는 작은 비석에는 마틴 루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의 반대 편에는 3명의 이름이 차례로 위에서부터 각인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보면 얀 후스, 존 위클리프, 맨 위에는 이후에 왈도파라고 알려진 리옹의 발데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세기 말부터 13세기 14세기를 거쳐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꽃피기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것 같아서, 이 이름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중세의 역사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꾸준히 믿음으로 응답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에,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이 마침내 찬란하게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 기념비는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 준 개혁의 깃발을 이제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하는 차례라고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떼제 공동체에는 대략 15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뢰와 연대를 위한 순례의 행렬이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열려진 태도와 환영하는 분위기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서로 연결되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참된 개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이웃을 바라볼 때, 그래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개혁하고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다른 이를 사랑과 환영의 대상으로 여길 때, 어느 때보다 더욱 개혁의 물결이 넘쳐나리라 생각합니다. 곧 돌아가서 뵈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룻기 4:13-22

제목 : 룻,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다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204 449 / 560

1.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What)

- 1)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다.<13>
- 2)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다윗 할아버지이다.<17>
- 3) 보아스의 전세대와 후세대를 소개하다.<18-22>

2.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Why)

- 1)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었다.
- 2) 복음의 보편성,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 3) 믿음 안에서의 만남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3.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것을 감사하자 (How)

- 1)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복)를 계승하자.
- 2) 그리스도인, 복음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 3) 결혼준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자.

요즘 나의 삶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받았다. 20여 년을 몸담아온 곳에서의 갑작스런 휴직 통보는 내게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주었던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리되어가는 때, 지난 3월부터는 일터가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바뀌었다. 평택으로 옮기면서 내 삶의 공간 변화도 컸지만, 역할과 위치가 바뀔에 따라, 나의 시야도 꽤 많이 넓어져 버린 듯하다.

새벽 5시,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출근하는 시간 동안, 지난날의 많은 추억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동두천의 첫 일터로 올 때만 해도, 고향 대구를 그렇게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었다. 24살 첫 사회생활의 경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며 사랑방을 만났고, 직장에도 정착하며, 벌써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에는 사랑방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날, 우리 가정을 사랑방으로 인도해주셨음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랑방으로 우리의 신앙의 터를 정하며 기도할 때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참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셨었다. 아이들을 꾸러기어린이뎀쟁이학교에 보내면서 누렸던 즐거움과 기쁨이 응답이었고 감사였다. 또 그루터기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공동체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의 시선을 성령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성장시켜주셨으니까. 사랑방에 어려움과 갈등이 생겼을 때, 힘들었고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주신 소중한 신앙의 터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귀하게 세우셨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평택으로 일터가 옮겨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다. 우리의 터를 옮기시려는 건가? 헛갈리기도 했다. 이전에 대구에서 이곳 경기도로 올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기에 복잡하게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곳 평택 땅에서 무얼 하고 싶으신 걸까. 왜 이렇게도 심 없이 평택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걸까. 그래 일단은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와보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인 사람들이 있구나...” 새벽 출근 때마다 기도가 절로 된다. 무너지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어서, 주변을 잘 살피게 해달라고...

새벽기도기간에, 사랑방 지체로부터 은혜의 나눔이 휴대폰을 통해 올린다. 그 은혜가 내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감동이 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맘이 편하다~. 내가 있는 곳, 내 영혼이 숨을 고르는 곳, 지금 평택에서의 삶도 주님 주신 은혜요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마음에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

직장이나 주변 환경에 내가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사랑방이 나의 마음을 다잡아주니 감사하다.

사랑방공동체 사무국 박영선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84 : 1-4 인도자
1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585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누가복음 17 : 20-21 설교자
210 사랑방
“하나님 나라의 삶을 채우십시오”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38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오영옥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사랑방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20b-21>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너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충만한 곳.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개인과 집단의 모든 문제를 극복한 삶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삶, <행2:42-47> 하나님의 나라, <롬14:17> 교회론의 화평한 관계 <엡2:13-18> 등은 성령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줍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채우십시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개혁하고 회복해야 할까요? 본래 교회의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믿는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중심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중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박영선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어느덧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쌀쌀하면서도 더운 날씨에 적응한 꾸러기들은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전에는 금방 지쳐서 감기 걸릴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놀아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줘서 놀랐습니다. 지난 학기만 해도 오래 걷거나 뛰면 힘들어했는데 애들은 순식간에 쑥쑥 자랍니다. 꾸러기들의 뛰는 놀이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주도 멋졌지만 더 멋있어진 가을을 보러 광릉수목원에 갔습니다. 평강랜드는 이제 막 나무들이 물들기 시작했다면 이번 광릉수목원은 온통 빨간색, 노랑색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평소에는 만나절정도 광릉수목원에 산책하러 갔었다면 이번에는 도시락 싸서 하루 종일 광릉수목원에서 지냈습니다. 알록달록 나뭇잎들을 가지고 가면도 만들고, 떨어지는 나뭇잎도 잡아보고, 제일 좋아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모래놀이도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경이야기 활동은 하나님 세상을 만드는 7일을 상상하며 각자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창의적입니다. 뾰한 그림체가 없고, 종이접기나 색종이 모양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책을 만드는데 누구하나 생각이 겹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지막 7일은 하나님이 쉬셨는데 누구는 색깔로만 표현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구름위에서 쉬시는 모습도 그리는데 이렇게 표현 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랐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표현과 생각들과 많이 다른 아이들만의 멋진 상상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화요일 아침 마음과 몸을 무장하고 도보여행을 떠났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르막이 나와서 힘들고 지쳤지만 아이들은 정말 앞 사람의 신발과 가방을 보며 침 없이 잘 걸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엔 부모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점심과 맛난 간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간식을 바꿔 먹기도

했답니다.
배움과 가르침

예정시간보다 항상 빠른 시간에 들어올 정도로 아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들어와서 다 씻은 후에 맛난 저녁을 먹었고, 끊임없는 재잘거림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수동 고로쇠마을에서 운악산 자연휴양림을 찍고 학교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60km 가량을 걸었습니다.

먼저 !! 힘들지만 곳곳이 잘 걷고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도와시고 지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주신 사랑방공동체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지난주 멋쟁이들은 '테마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기 첫 번째 공동심화 주제였던 "한국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는 것이 이번 여행의 테마였습니다.

지역별로 총 4개의 모둠으로 나눠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의정부 시내부터, 멀게는 광주까지 모둠별로 전국을 누비며 먼 곳까지 다녀왔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또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느끼고 배우고 돌아온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1모둠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에서 창덕궁, 종묘, 왕릉들, 남한산성, 국악박물관을 방문하여 세계문화유산들을 위주로 보았고 롯데월드도 가고 방탈출도 하였습니다. 2모둠은 수원화성과 서울에 있는 세계기록유산들 찾아갔습니다.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등 책과 미디어를 통해 배웠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3모둠은 광주, 전주 대전에서 5.18광주민중화운동 기록물, 필암서원, 고창갯벌, 전주 서원, 백제유적지구 등을 관람하였습니다. 4모둠은 경상북도 안동과 경주를 중심으로 부석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하회마을, 경주&백제역사유적지구를 관람하며 세계 유산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6학년들은 학교에 남아 열심히 자신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남아있는 6학년들과 식사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목상 시간에 모두 모인 멋쟁이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방실방실 좋아보이는 것으로 보아 모두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행하며 느꼈던 것들을 잘 정리하여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교사 : 박예나 >

함께 어울리는 주일

공동체 마당 데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가을 정취가 온 몸으로 느껴진다.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물든 이맘때 우리 공동체 풍경이 참 아름답다. 코로나 이후 주일 공동식사의 장소가 야외로 변경이 되었는데 자연예배당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았지만 자연 속에서 삼삼오오 둘러앉아 오붓한 식사를 하는 것은 더 운치가 있고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야외 데크 테이블에서 식사 후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또 어떤가? 유명 관광지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부럽지 않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지체들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후 탁구로 운동하는 시간도 즐겁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 모든 시간이 정겹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한다. 야외 데크를 정갈하게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커피와 차를 준비하고, 운동을 마치는 시간에 저녁을 준비하는 손길까지 있다. 이렇게 귀한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삶 안에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린다. 참 좋다. 감사하다.

생활공동체 그루터기사랑방 박태규 집사

<주요 정오기도회>

말씀 : 누가복음 2:36-38

인도 : 정태일 목사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1) 새터마을교회, 탈북민 사역과 북한선교 준비
 - 2) 개척자들,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구호활동과 평화교육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1)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종교개혁 기념주일 앞두고)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어린이학교, 도보여행(건강과 안전, 몸과 신앙의 성장)
 - 2) 멋쟁이학교, 테마여행(건강과 안전, 몸과 신앙의 성장)
 - 3) 멋쟁이학교, 5학년 유럽공동체탐방(떼제 체류기간 신앙성장)

< 생활공동체 소식 >

맑은 하늘과 가을 단풍이 어우러진 공동체의 풍경은 아름답다는 감탄사로는 부족할 정도로 멋지고 혼자 보기에 아까울 정도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은 밭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배추를 보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교사인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도보여행과 테마여행으로 전국을 누비며 학생들과 이 은혜를 누렸으며 공동체에 있는 다른 식구들은 모닥불을 피워 마당에서 식사를 나누며 이 축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느티나무의 나뭇잎이 양탄자처럼 가득 깔려 있는 공동체의 뜰을 밟으며 화단에 핀 가을꽃을 감상하는 기회를 다들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유난히 짧은 무림리의 가을이니 획 지나가기 전에 맘껏 누리보려 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